

서울특별시

초복 앞두고 닭·오리고기 판매업소 위생관리 점검

서울시는 예년에 비해 이른 무더위로 보양식 식재료를 찾는 시민들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복날을 대비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닭·오리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14일(일)까지 시행되며 공무원(1명)과 시민명예감시원(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이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잔류항생·항균물질·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 발견 시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이번 기간 중에는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를 대상으로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계도활동을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보양식 식재료인 닭·오리고기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의지와 더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닭·오리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 냉동닭 해동해 냉장 닭으로 속여 불법 유통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입 냉동 닭고기를 해동해 냉장 닭으로 속여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정육점에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 닭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15억6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닭고기를 해동해 자체 제작한 비닐팩으로 재포장한 후 ‘제조 날짜’를 ‘재포장 날짜’로 바꿔 적는 방식으로 최대 8개월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이같이 재포장한 닭고기를 수도권 일대 닭갈비 식당 15곳에 납품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동 닭을 해동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통기한이 변조돼 납품됐기 때문에 실제 식당에서 변질되거나 상한 닭이 그대로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가축 폭염 피해대책 추진

충청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가축관리 대책’을 시군에 시달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젖소와 돼지는 27℃, 한우와 닭은 30℃가 넘으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스트레

스가 지속될 경우 가축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지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에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는 185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도내에는 11만9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식욕부진과 소화율 저하로 살이 찌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므로 농가에서는 가축의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차광막을 설치하고, 고온이 지속되면 축사 지붕에 물을 뿌려주며, 축사내부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선한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비타민, 전해질제 등을 투여하여 면역력을 높여 주어야 하며, 가축과 축사시설을 수시로 관찰하여 건강 상태나 전기시설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등 평소보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는 축사환경 및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15억 원, 양계·오리농가 축사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설치에 7억 원, 친환경축산시설장비보급에 26억 원,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에 3억 원, 생균제 공급에 10억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2억 원 등 총 1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된 양계·오리농가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설치 사업과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여름철 축사내부의 온도를 5~7℃ 정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는 그동안 111농가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송풍기 및 환기팬을 2006년부터 총 57억 원을 투자하여 15,30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폭염 특보가 발표될 경우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대비토록 하고, 시·군과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사양관리 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청원군, 축사 내 다목적 전동차 지원



청원군이 관내 축산농가에 다목적 전동차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말부터 관내 오리·닭 농가를 대상으로 좁은 축사 내 사료와 왕겨, 유추 병아리 등 인력으로 운반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전동차 지원에 들어갔다.

전동차는 조작이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며 8시간 충전에 4시간 작업할 수 있고 최대 수송 중량도 350kg에 달한다.

특히 전동차 운행 시 소음이 없어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가축 사양관리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전동차 가격은 1대당 420만 원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구입비의 50%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동차 지원으로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절감하고 영농 고충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10대를 공급했지만 농가 호응이 좋고 사업 효과가 크면 내년에는 다른 축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울진군, 폭염대비 대책상황실 운영

울진군은 9월까지 폭염 대책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하절기 폭염 대비 대응체계 확립과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농정과·농업기술센터·읍면산업부서 등에서 16명의 T/F팀을 구성했다.

폭염주의보 발표기준을 살펴보면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

폭염이 지속되면 소·돼지·닭 등 가축의 경우 사료 섭취량이 감소되고 소화율 저하 및 비타민과 광물질 요구가 높아지며 번식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때 농가에서의 대처방법으로는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크게 설치해 온도 상승을 억제시키고 시원한 물을 자주 주고 충분히 급여되도록 조치하고 한낮에 축사에 시원한 물을 뿌려 축사 온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폭염 대책상황실에서는 농가에서 폭염 상황이 지속되어 질병·폐사축 등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폭염대책상황실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전라남도

닭 뉴캐슬병 3년 연속 청정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닭 뉴캐슬병에 대한 예방접종 홍보와 차단방역을 강화한 결과 지난 2010년 5월 나주와 해남지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아 3년째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난 6월 20일 밝혔다.

닭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ND)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닭이 감염될 경우 거의 100% 폐사한다.

어린 닭에서 다리와 목이 마비되고 떠는 신경증상이 나타나며 산란계에서 뚜렷한 증상 없이 산란율이 떨어지는 치명적 급성 가축 전염병이다.

하지만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100% 예방할 수 있다. 육계의 경우 3차까지 접종토록 권장하고 있다.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올 6월 현재 220농가 3만여 마리의 닭에 대한 예방접종 유무를 검사한 결과 항체 양성률이 산란계는 99%, 육계는 92%로 예방접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6농가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해 현지 지도 등을 통해 100%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